

Rewrite for my mother- a travelogue in Beijing written in Korean

Kim Young-jook

Sungkyunkw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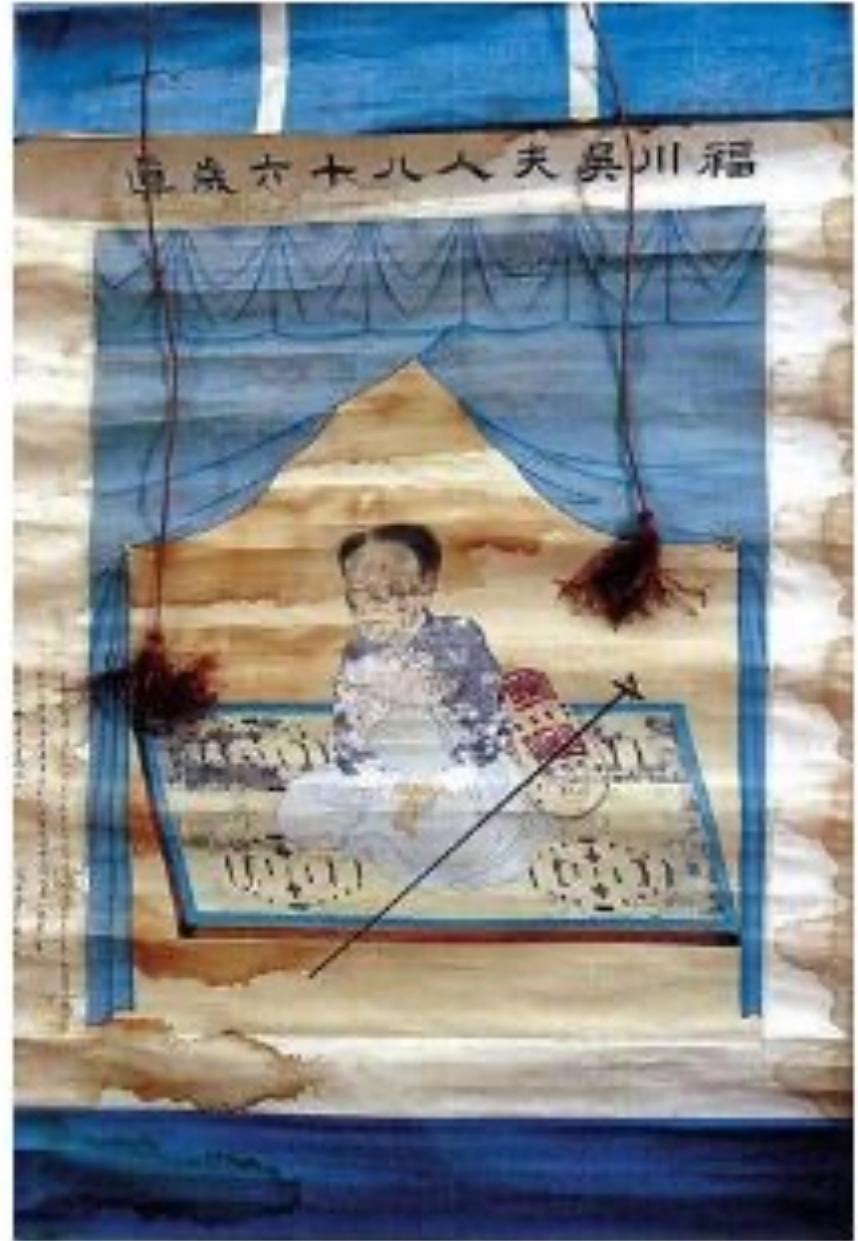


표암 강세황

1761년, 복천오부인86세 초상화, 견본채색, 78.3x60.1cm,
이영용 소장.

-평상복 차림의 조선시대 여인

*18세기 조선시대 어머니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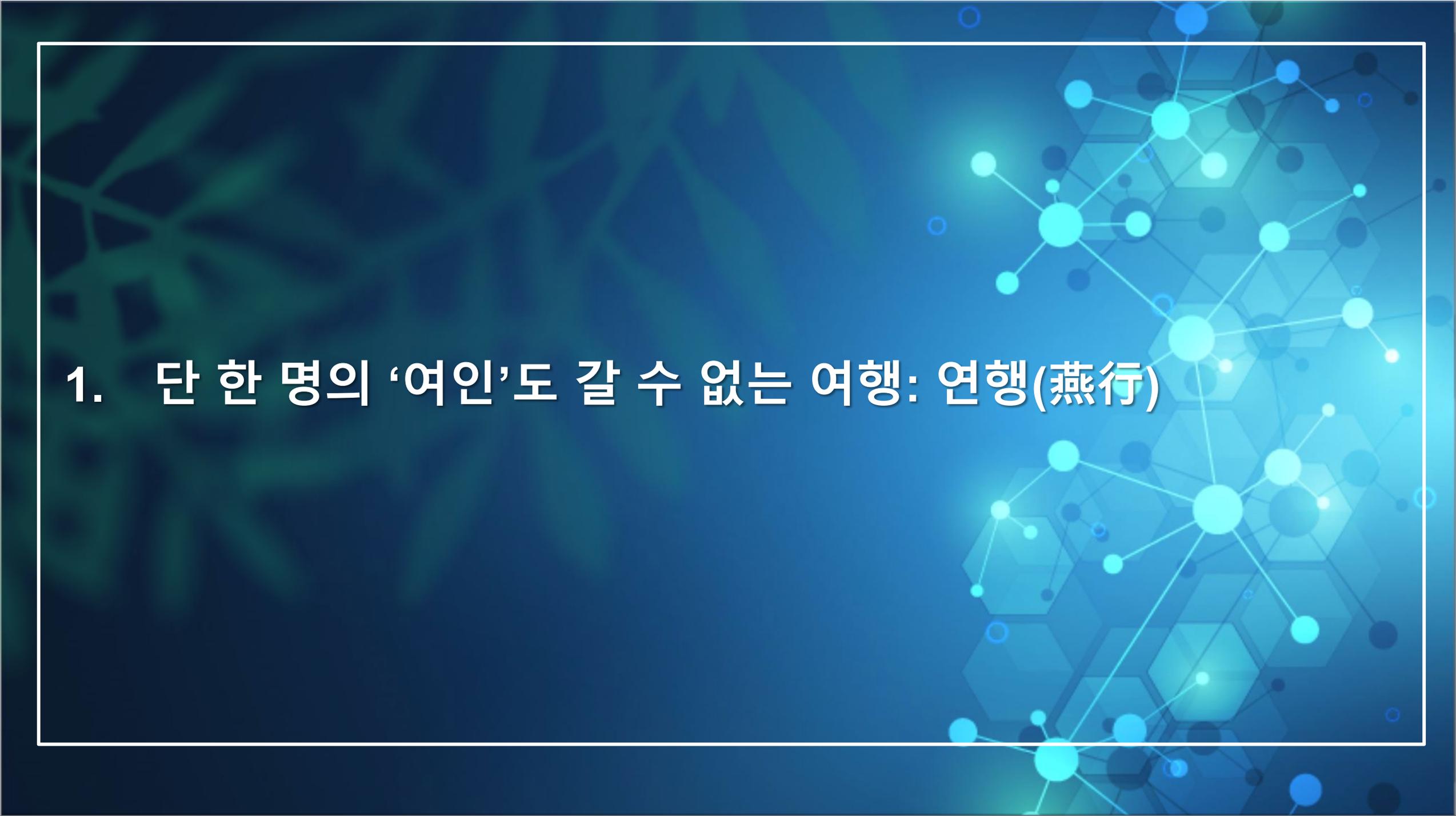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풍속이 중국과 달라서
부인의 화상(畫像)이 없는 것이
한스럽다.”

<사양재집>, 강호보(1690~1778)

목차

1. 단 한 명의 '여인'도 갈 수 없는 여행: 연행(燕行)
2. 국경 넘는 아들, 배웅하는 어머니
3. 어머니를 위한 책: 한문(漢文)에서 한글로
4. 와유(臥遊): 아들의 견문(見聞)을 따라 나서다



1. 단 한 명의 ‘여인’도 갈 수 없는 여행: 연행(燕行)

▣ 체류기간

한양->북경(1개월 반)

북경체류기간(40-60일)

북경->한양(1개월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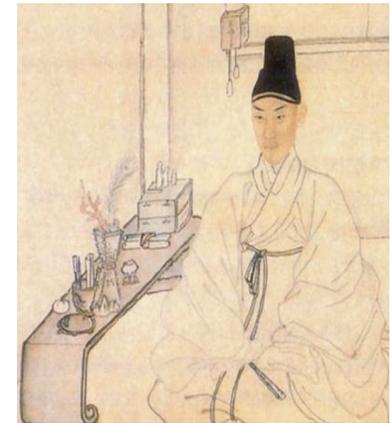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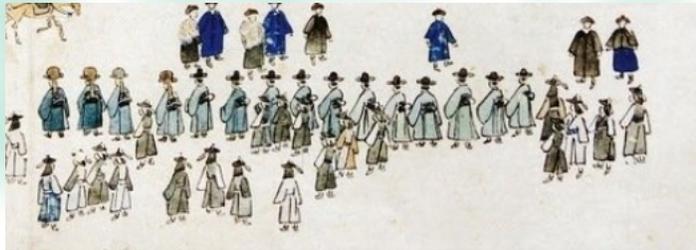
▶ 총 5개월 (+)



▣ 참여인원

-250인~500인

-공식 구성원: 삼사(정사, 부사, 서장관), 역관, 의원,
사자관(서기), 화원, 군관, 마두, 역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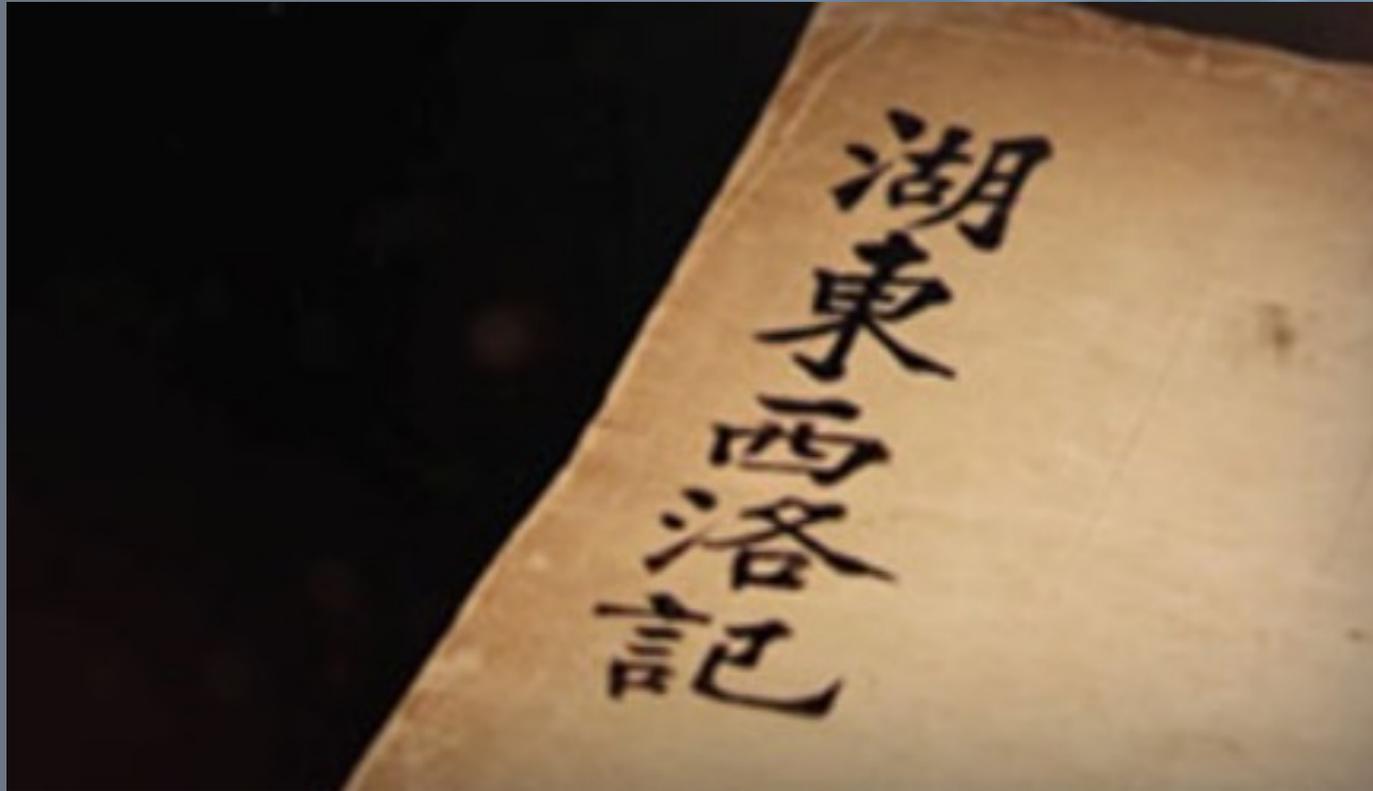


상상(想像) 1

-어떤 여인도 참여할 수 없었을까?

-남장을 하고 가지는 않았을까?

* '금기'는 많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다.



“사족의 부녀로서 산간이나 물가에서 잔치를 즐기는 자, 야제(野祭)나 산천성황 사묘제(山川城隍祠廟祭)를 행하는 자는 장(杖) 100대에 처한다”

<경국대전>

김금원(金錦園, 1817~?)

“스스로 복색(服色)을 돌아보니 홀연히 처연(悽然)함을 깨닫게 되고 혼자 속으로 말하기를 여자가 남자의 복색을 갖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사람의 정이 무궁함에 있어서라!”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부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불행이지만 하늘은 나에게 산수를 즐기는 어진 성품과 눈과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또 이를 글로 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규방 깊숙이 틀어 앉아 여자의 길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가.”

2. 국경 넘는 아들, 배웅하는 어머니



- 많은 연행록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화소가 등장한다.
- 연행 도중 주고받는 '가서(家書: 집에서 온 편지)'의 대상.
- 왕복 5개월 사이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을 만나거나 '부고'를 듣기도 한다.

<몽유연행록> 이유준, 1849

殊方客意際新年 이역의 땅, 나그네 마음 새해를 맞이하니
散步清宵望遠天 맑은 밤 산보하며 먼 하늘 바라본다네
可愛玉河橋上月 사랑스러워라, 옥하교(玉河橋)에 높이 뜬 달
分明照我北堂前 분명 우리 북당(北堂) 앞을 비추리라

*북당: 어머니의 처소를 지칭한다. 원래는 가옥의 동쪽 방 중 부녀자들이 몸단장을 하던 곳이었는데, 후대에는 어머니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북원록>/<서원록> 권1 이의봉, 1760

홍제원(弘濟院)에서 조금 쉬고 40리 길을 가서 고양(高陽)에서 잤다. 아버지께서 동이 틀 무렵 궁궐에 나가셔서 머물러 기다리고 있다가 입시(入侍)하셨다. 연서역(延曙驛)에서 근무하는 나졸이 어제 이미 말을 가지고 와서 대령하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점심밥을 먹은 뒤에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하니 어머니께서 차마 헤어지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기에 이르렀다. 내가 억지로 좋은 말씀으로써 위로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일을 두세 번 반복을 하였다가 말을 타고 출발을 하니, 마두(馬頭) 한 사람이 뒤를 따랐다

*<북원록>/<서원록> 이의봉, 1760

-반전(盤纏)의 은전(銀錢)과 종이부채〔紙扇〕, 연죽, 화철은 모두 건량에서 나고, 또 청심환 300알과 각색의 붓 50자루, 먹 5개를 따로 장만해서 두루 다니며 구경하는 비용에 다 쓰고 돌아올 때 행장은 서적 이외에 오직 팔보당(八寶糖) 한 부를 가져오니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었다

밥을 다 먹고 장차 출발하려고 하는데 창군에게 집에서 13일에 쓴 편지를 받아 보았다. 어머니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온 집안이 다 함께 편안하다고 하니 먼 여정의 회포를 위로할 만하였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이 “이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니 서글프다.”라 하였으니 그것을 삼가 두세 번 읽게 되자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십리포에서 45리를 가서 백탑보(白塔堡)에 이르러서 아침밥을 먹고 또 24리를 가서 심양에서 잤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뵈자 거동하는 것이 편안하시었는데 깨고 나자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위로되는 것이 매우 엇갈리었으나 날개가 없어서 용만으로 날아서 갈 수 없는 것이 한스러웠다.

<북경록>, 신태희(申泰羲, 1800~1850), 1826

異域逢生日	이역에서 생일을 만나고 보니
蒼茫馬上情	말 위에서 느끼는 정 창망도 하다
廚供前例薄	음식 대접 앞서처럼 박하기만 해
行色半年輕	행색이 반 년 만에 보잘것없네
朔雪貂裘冷	북풍한설에 담비 깃옷 싸늘도 하여
燕歌膽氣驚	연가(燕歌)에 담기(膽氣)가 놀라는구나
高堂今夜夢	어머니는 오늘 밤 꿈을 꾸실 때
應到鳳凰城	분명히 봉황성에 이르시리라

<을병연행록>, 홍대용, 1765

磋爾子行役	슬프다! 아들의 행역이여.
胡為燕京道	어찌하여 연경 길인가.
男兒四方志	남아의 사방 뜻이
宿昔有所抱	오랫동안 품은 바 있구나.
蒼蠅驥附尾	쉬파리가 천리마의 꼬리에 붙으니
遠游時則好	멀리 여행하는 것이 때인즉 좋도다.
行宜勿復念	떠나서는 다시 염려치 말라.
吾年未耄老	내 나이 늙지 아니하였노라.

3. 어머니를 위한 책, 한문(漢文)에서 한글로

▣한문본과 한글본이 현전하는 여행록

①강호보(姜浩溥): <상봉록(한글본)>과 <桑蓬錄>(漢譯本)

②홍대용(洪大容): <을병여행록(한글본)>와 <담헌연기>

③박지원(朴趾源): <열하일기(한글본)>와 <熱河日記>

④서유문(徐有聞): <무오여행록(한글본)>과 <戊午燕錄>

⑤김창업(金昌業): <여행일기(한글본)>와 <老稼齋燕行日記>

⑥이상봉(李商鳳; 이의봉李義鳳): <서원록(한글본)>과 <北轅錄>

▣ ‘어머니’/집안 여성독자를 위한 한글 번역

“玉稿는 副本이 없어 나의 조부와 아버지 때부터 때때로 늘 깊은 한으로 여겼다.. 다행히 집안에 彦本 한 권이 있었는데 공께서 일찍이 어머니께(증조모) 보여드리려 손수 번역해서 쓰신 것이었다.”

강호보 <상봉록>/<상봉록>

- 한문본과 한글본(번역본)의 내용은 완전히 같은 것인가?
-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생략된 부분과 확장된 부분
- 독자층(여성)의 지식정보 수용 능력을 어디까지 예상했는가?

▣ 대략적 양상_학계의 선행 연구

-한문본:주제 / 한글본: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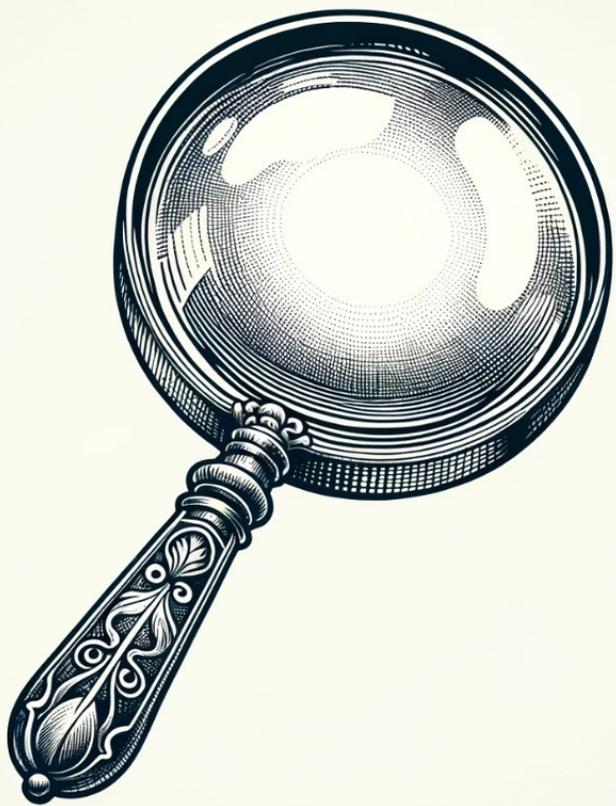
-한문본:논리적,논제적 서술 / 한글본:신변잡기 중심

-한문본:사실적 묘사 / 한글본:비유적 묘사

*정말 그러한가? 무엇을 놓쳤는가?

번역자(아들)과 독자(어머니)의
‘관계’에 주목하기!





Sample

강호보(1690-1778)와

어머니 김(金)씨 부인



贅言卷之三十

行狀

先母行狀

先母姓金氏其先安東人太師宣平之後也中葉衰替不振回去業弓馬曾祖諱忠教以才俊受知於白沙相公而性簡亢不附權貴官止訓鍊院副正祖諱漢俊以豪爽風流自任性又亢既出身耻折腰於公卿之門故外海西不起以此回落拓官止訓鍊院判官考諱成岌好風儀美鬚髯又以善射見推於人而轂奇不遇家貧無以自資而不事干謁先城府院君全公素知其窮又嘉其操欲為引拔階屬之麾下校

<10 대 조모 안동 김씨>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狀>_강호보 <사양재집>

1)가계

선모(先母:돌아가신 어머니)의 성(姓)은 김씨(金氏)이다. 그 선조들은 안동(安東) 사람인 고려(高麗)의 태사(太師) 김선평(金宣平)의 후손으로, 중세 이후에 집안이 기울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대대로 활 쏘고 말 타는 일에 종사하였다 ... 어머니께서는 우리 선군자(先君子:돌아가신 아버지)의 측실(소실)이시다. 적모(嫡母: 정실부인, 큰 어머니)께서 작고하신 뒤로는 우리 선모께서 선군자의 시중을 들면서 집안 살림을 주관하셨는데, 어머니를 여인 불초한 자식인 나는 당시에 나아가 아직 어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 정실 자녀에게도 존경받았던 어머니.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狀>_강호보 <사양재집>

2) 집안 제사와 관련한 모든 일을 지휘

어머니께서는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반드시 기일에 앞서 목욕재계하고 계집종들로 하여금 밤에 나가서 자지 못하게 하셨으며 절굿공이와 절구통까지 반드시 직접 살피고 제기도 반드시 손수 설거지하셨다. 제사 하루 전날에 찬품이 다갖추어지고 나면 탁자 위에 찬품을 올리고 병풍을 둘러 밤새 그 앞에 앉아서 닭이 울 때까지 기다리셨다. 간혹 앉은 채로 선잠에 들기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누차 꿈속에 조상신이 강림하는 영험이 있었다.

→ '측실(소실)'로서 집안 제사를 지휘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狀>_강호보 <사양재집>

3) 사랑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엄한' 어머니

아버지께서 여러 자식들을 남겨 두고 별세하셨을 때 나 호보(浩溥)는 6세(1695년)였고 아우 연보(淵溥)는 태어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다. 선모께서 믿고 살아가시는 이유는 오직 불초한 우리 형제들뿐이었지만 말과 표정에 우리 형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을 {선모행장 6쪽}내보이신 적이 없으며, 우리 형제가 병들어 아픈 경우가 아니면 쓰다듬거나 업어 주신 적이 없었다.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狀>_강호보 <사양재집>

4) 어머니의 교육열

- 몸이 아파도 몹시 위독한 정도가 아니면 반드시 숙제를 하게 하셨는데, 때로 흑 글 읽기를 빠뜨리면 며칠이고 불을 때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끼니를 거르셨다.

- 글을 읽을 때가 아니면 반드시 나를 불러다 무릎에 앉혀 두고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나는 어릴 적에 다른 아이들과 교제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평생 연날리거나 죽마 타기 같은 놀이를 할 줄 몰랐으니, 어머니의 가르침이 얼마나 엄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狀>_강호보 <사양재집>

-내가 문방구를 보고 가지고 싶어 하면 향아리 속의 곡식이 그날 저녁에 지어 먹을 만큼 밖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슬픈 내색 하나 없이 이를 모두 팔아넘기셨다. 산 몇 군데에 밭을 가지고 계셨는데 내가 그 중 한 군데를 팔아서 종지와 먹을 장만해 주기를 청하자 이를 기꺼이 허락해 주셨으며, 책 상자를 짊어지고 산방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죽을 쑤어 먹기조차 녀석지 않더라도 힘을 다해 공부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서 기어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내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음에도 대강이나마 글자를 분변할 줄 알게 된 것은 극히 작은 것까지도 모두 다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이다.

→ 『사양재강선생행장』(강호보의 행장)에는 그가 어머니께 직접 詩를 배운 기록이 있다.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狀>_강호보 <사양재집>

5) 집안의 경제주체

-어머니께서는 집안의 살림을 꾸리실 때 검약과 절감을 으뜸으로 삼아 계획보다 앞서서 세간을 마련하는 것을 직무로 삼으셨다. 늘 말씀하시길 “기한에 앞서 미리 계획하면 비용을 줄이고 노력을 덜 수 있으며, 기한이 닥쳐서야 계획을 세우면 비용은 배가 되고 더 힘들게 된다.”라 하시며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셨다. 게다가 법도가 엄밀하고 조리정연하며 두루 역량이 미쳤으니, 노력을 적게 들이고도 많은 일들을 알맞게 처리하시고, 비용이 부족해도 넉넉하다 여기고 보완하여 정리하셨으니, 수입이 우리보다 배가 되는 집안보다도 항상 살림을 넉넉하였다.

→ 외조부 김성급은 무관, 외조모 박씨는 역관 집안의 딸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狀>_강호보 <사양재집>

-어머니께서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셨기에 실을 뽑고 옷감을 짜는 등의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셨다. 그러다가 시골로 내려온 뒤로 만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그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따로 배우지 않으셨음에도 능숙하게 하셨다.

-평소에 재물을 알맞게 아껴 써서 털끝만큼도 낭비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빈객을 접대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데 드는 비용에는 힘닿는 한 인색하신 적이 없었다.

→ 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만 빌리고,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빌리지 않는다.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狀>_강호보 <사양재집>

5) 공부를 핑계로 타협하지 말아라

-내가 17세(1706년)쯤이었을 때 과거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고자 상경해서 정재(靜齋) 윤공(尹公:윤홍)의 문하에 들어가 그 차남 여경(汝擎:윤광주)과 함께 공부하였다... 여경이 나에게 같이 장성에 갈 것을 청하였으나, 나는 어머니 곁을 더 멀리 떠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여경이 거듭 말하기를, “그대가 서적을 매우 사랑하는데 남쪽 고을에는 책판이 많이 있으니, 내가 책판에 서적을 찍어 드릴 것이며 자당(慈堂;친구의 어머니)께 필요할 의복과 음식 또한 도움을 드릴 수 있소.”라고 하였다... 내가 비로소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으나 감히 멋대로 결정할 수는 없었기에 곧장 그런 생각을 글로 써서 어머니께 아뢰자, 답장을 써서 말씀하셨다.

→“가지말고 속히 오너라. 듣자하니 장성군에 기생집이 있다고 하더구나. 네가 아직 장가들지 않았으니 네 천성이 심히 방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사내 녀석들이란 어디로 될지 알 수가 없는 법이니라...”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狀>_강호보 <사양재집>

6) 부당한 이익은 구하지 말거라

-우경서가 말하기를, “나에게 큰 계책이 있어 오직 그대만 믿고서 천 리 먼 이곳까지 왔다네. 그래서 연천군에서부터 이곳 능주군으로 곧장 오지 않고 우회하여 자네의 고향인 팽성을 들렀으니, 그저 자당(친구의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 올 생각에서였지. 자당께서는 내가 이곳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처음에는 편지를 전해 주게 하셨다네. 내가 자네의 아우에게 말하기를, ‘내가 능주에 대대로 상속되어 온 노비가 수백 명 있으니, 만약 한 명 한 명 다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수 천 금을 얻을수 있을 것이네. 자네의 형이 힘껏 주선하기를 잘하니, 모두 잡게만 해 준다면 내가 반드시 자네의 형에게 그 이득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네. 그러니 편지에 모쪼록 이러한 의견을 언급하여 권장해 주게나.’ 라고 하였네.

→“우리 아이는 본래 소송과 관련해 청탁을 받아 이익을 나누어 갖는 사람이 아니니, 자네는 부디 능주로 가지 말아 주게나.”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狀>_강호보 <사양재집>

7) 아들이! 청탁이나 매문(賣文)은 선비가 할 일이 아니란다

-그동안 정재 율공을 따라나서며 타향에서 여러 차례 객지살이를 하였는데, 청탁을 받은 일이 단 하나도 없었고 또 일마다 미루어 헤아려서 60년 동안 출입을 금하고 우직한 천성을 지켰다.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 과거 시험을 함께 공부하기 위하여 벼슬과 복록으로 유혹하거나 재물과 이익을 공여해도 끝내 감히 지조를 팔아먹거나 절개를 굽히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혹 나를 원수 같이 여기고 그것이 재앙의 빌미가 되더라도 끝내 감히 후회하지 않아서, 남에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 이는 나에게 다소나마 지조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 우리 선모께서 굳게 지켜 오신 자세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관직을 빙자한 뇌물 청탁, 과거 시험을 위한 '과외선생' 등, 당시 서얼, 중인 지식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의 예시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狀>_강호보 <사양재집>

8) 너의 공부를 응원하노라

-나는 초시(初試)에는 누차 합격하였으나 회시(會試)에는 번번이 합격하지 못하였다. 을사년(1725년, 강호보 36세)에 불초한 우리 형제가 모두 초시에 합격하였는데, 나는 회시에 또 합격하지 못하였고 아우 연보만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727년 강호보는 여행 길에서 점치는 노인에게 '과거합격' 운을 물어 보기도 한다.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狀>_강호보 <사양재집>

-병진년(1736, 강호보 47세) 내가 별시(別試)에 참여하여 회시(會試)에 입격해서 성균관 입학 후보에 들었다가 제외되었다... 어머니께서도 내가 급제하기를 지극히 바라셨는데, 내가 늙기도 전에 서둘러 과거시험을 그만두겠다는 것을 어찌 허락하신 것이겠는가. 만약 어머니께서 세계 고집하고, 그만두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또 어찌 감히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겠는가...부녀자로서 그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기를 바라는 심정에 어찌 끝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내가 과거시험 그만두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여기서 또한 어머니께서 세속적인 부녀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지지자'로서의 어머니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狀>_강호보 <사양재집>

■ 유독 당신의 친족에 관하여 이야기가 미칠 때면 그때마다 서글픈 심정을 금치 못하며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안은 비록 대대로 무반(武班)의 벼슬만 지냈으며 또 재주와 덕행을 갖추었다고 일컬어진 적도 없지만 그래도 벼슬살이를 한 가문이기는 하다. 그러나 가난한 탓에 좋은 훈처를 구하지 못하여 마침내 후대로 내려오면서 서족(庶族)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나는 이를 슬퍼하거나 한스러워하지 않으니, 공경대부의 자손들이 평민으로 떨어지는 것은 으레 있는 일이며 쇠락하고 침체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후손이 없어 선산(先山)이 경기(京畿) 내에 있음에도 문득 자손이 없는 집안의 오래된 무덤이 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종신토록 지극히 애통할 따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狀>_강호보 <사양재집>

9) 노모의 시비판단; 두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듣건대 아버이의 나이가 70이 넘은 경우에 그 자식들이 혹 유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그 자식들 중에 한 명을 특별히 용서하여 아버이를 곁에서 모실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국법에 범죄자를 지극히 인자하고 너그럽게 처우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억울함은 더욱이 호소하지 않아도 저절로 밝혀질 것이니라. 조정에 어찌 또 정홍순 같은 이가 더 있겠느냐. 이치상 반드시 오래지 않아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저 늙은 나를 위하여 네 몸을 잘保重하라.”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先母行狀>_강호보 <사양재집>

10) '특별한' 우리 어머니

-이번 봄 조정에서 경과(慶科)를 설행(1754년, 영조의 회갑에 치룬 과거) 하였는데 내가 과거 공부를 그만둔 지 이미 19년이나 되었지만 그럼에도 선모께서 굳이 내게 시험에 응시하게끔 하셨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헛된 꿈은 꾸지 않으셨고 꿈을 꾸시면 모두 길흥의 조짐을 먼저 보셨으며 하나하나 징험이 있었으니, 시초점이나 거북점이 사전에 길흥을 알려주는 것보다도 더 신통하였다.

→ '예지몽'의 소유자, 셋째 형님에게도 과거응시를 권유/합격

-선모께서는 궁벽한 산속에서 야심한 시각에 거대한 호랑이가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개나 돼지를 보듯 평온하게 여유를 가지고 문앞에서 호랑이에게 물러가라고 꾸짖으셨으니, 이는 아무리 용맹한 대장부라 해도 전설 속 괴력의 용사(勇士)가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것이었다.

▣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들려드렸는가?

1) 강호보의 <상봉록> 1741년 1월 22일

→연행 14년 후, 추가기록

-내가 어머니를 위하여 <북정일기(北征日記)> 번역하다가 이 단락에 이르러 당시의 내 의론이 다만 문인의 입버릇과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문체를 가지고 쉽게 말을 내뱉고 억지로 의리를 설명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2) <사양재강선생행장>

팽성에서 풍요롭게 봉양하게 되어서는, 사방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반드시 모시고 앉아서 종일토록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여 어머니께 들려드리며 기쁘게 해드렸다. 때로는 중국 음으로 경전을 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나라 음으로 읽기도 하여 어머니께 ‘중국’과 ‘우리나라’의 음(한자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다.

독자, 그리고 어머니

-집안의 경제, 교육의 주체

-아들(강호보) 학문의 든든한 후원자

-사서, 경전을 포함한 해박한 지식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현실감각

4. 와유(臥遊), 아들의 견문(見聞)을 따라가다

■한문 연행록 →한글 번역 공통 화소

- 1) 다양한 일상 문화: 의식주에 대한 일상적 소재의 세밀한 묘사
- 2) 이국의 풍물의 상세한 묘사: 인물, 건축, 산천, 기물 등
- 3) 여정의 소설적 구성: 노정의 에피소드의 사실적 묘사



Sample
1

*북경의 여인들; 만주족여인과 한족여인

『을병연행록』

그 며느리는 나이가 스물이 갓 넘은 여자로, 의복과 수식이 아주 선명 하되, 다만 눈이 크고 선량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세 살 먹은 자식을 등에 업고 들어와 청심원을 달라고 심하게 보채기에 내가 말했다.

“청심원은 있으니 진짜를 하나 줄 수 있긴 하오. 나 또한 부탁할 일이 있는데, 불안해서 못하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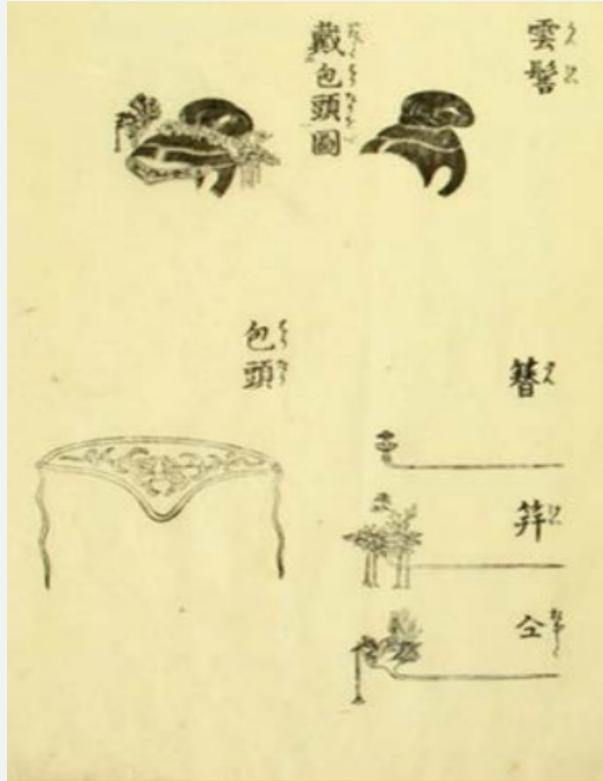
그 여자가 말했다. “무슨 일인지요? 말씀하시지요.”

“그대 머리에 꽂은 장식과 비녀(쪽)의 제도를 보고 싶으나, 남녀가 유별 한 까닭에 감히 가까이서 자세히 보지 못하니 애달프구려.”

여인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라고 하더니, 자식을 제 남편에게 맡기고 머리에서 여러 비녀를 다 빼어 보이고 두손으로 칸 앞을 짚고 머리를 내 앞으로 숙여 좌우로 돌리며 자세히 보라고 하니 매우 우스웠다.

Sample
1

*북경의 여인들; 만주족여인과 한족여인



만주족 여인의 머리장식 도구
(『清俗紀聞』, 큐슈대 도서관 소장)





Sample
1

*북경의 여인들; 만주족여인과 한족여인

심양 동쪽은 한족 여인을 흔히 보지 못했는데, 이즈음은 한족의 집이 더 많았다. 그 여인의 발 모양을 처음 보니 놀랍고 아니꼬워 차마 보지 못하였다. 신 모양이 말굽 같고 앞으로 조그만 부리를 내었으니 인두 부리 같았다. 한족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형겅으로 두 발을 동여 늪도록 주야로 푸는 일이 없는 고로, 갓난 아이 발 모양으로 그대로 있고 그 살이 다 위로 물려 대님 맨 지경이 매우 커 수종다리 같으니 이는 비록 중국 풍속이나 괴이한 제도이다.

Sample
1

*북경의 여인들; 만주족여인과 한족여인





Sample
2

*여정의 소설적 구성; 강호보의 <상봉록>

*시(詩) 원고를 잃어버리다!

1)

진실로 시는 성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꾸며 내기는 어렵다.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시 원고와 일기를 밀봉한 채로 주머니에 넣고 조금도 몸에서 떼어 놓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계주(薊州)에 이르러 시고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아마 옥전(玉田)에서 떠날 때 피곤하여 아팠고, 또 바빠서 미처 살피지 못한 채 잊고 온 것이다.

*여정의 소설적 구성; 강호보의 <상봉록>

2)

어느 곳에서 잃어버렸는지 생각나지는 않았지만 오랑캐(胡人)가 가져갔을 것이라 짐작했다. 예전에 듣기로 “서파 오판서가 정사 신분으로 연경에 올 때 약간 (청나라에 대한) 불평의 말을 시에 썼는데, 그 시를 우연히 길에서 잃었다가 한 오랑캐가 그 시를 주워서 숙소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누구인가? 이 시를 지은 놈이? 내 장차 북경으로 가져가 황제께 아릴 것이다.’라 하였다고 한다.

->결과: 당황한 일행이 은화와 천금의 재산, 뇌물을 주어 해결함.



Sample
2

*여정의 소설적 구성; 강호보의 <상봉록>

3)

이에, 나이드신 어머님께 편지를 써서 이 일의 자초지종을 대략 기록하여 귀국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편지의 끝에 '불효자'라고 썼다. 또, 동생 강위보에게는 영결서(유서)를 써서 남기고, 행장을 점검하였다. (북경에 함께 온) 집 노비 기생(寄生)을 불러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말하고 다음과 같이 분부를 내렸다.

“며칠 못되어 나는 반드시 주검이 될 것이다. 너는 미리 행장을 내가 적어준 대로 하거라.”

기생은 내 말을 듣다가 그만두고 당황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부짖었다.

-->경과: 동행한 사람들의 위로와 걱정→음주



Sample
3

***서양인 신부에게 얻은 흡독석; 이의봉의 <서원록>**

내가 “흡독석의 용법을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라고 하자 유송령이 들어가 두루마리 3장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목에 ‘흡독석원유용법(吸毒石原由用法)’이라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소서양(小西洋)에 독사 한 종류가 있는데, 그 머릿속에 돌 하나가 난다. 크기가 편두인(扁豆仁)만 하며 각종 독기를 뽑아 제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흡독석이다. 토착민들은 이 돌을 가져다가 본래 독사의 살과 본토(本土)의 흙과 함께 빻아 가루로 만들고 균일하게 섞어서 돌 하나를 만든다. 그 모양이 마치 바둑돌과 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흡독석이다...이 돌은 뱀이나 전갈, 지네 등 독충에 물려 상한 곳을 치료할 수 있고 또 큰 종기[癰疽]와 모든 혈어서 생긴 독[腫毒], 악성 부스럼[惡瘡]을 치료하는 데 그 효과가 몹시 빠르다. 만일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되면 바로 이 흡독석을 가져다 물린 상처 부위나 종기, 악성 부스럼이 난 위에 놓기만 하면, 이 돌이 능히 그 독을 빨아낸다.



Sample
3

***서양인 신부에게 얻은 흡독석; 이의봉의 <서원록>**

만일 끈끈해서 잘 떨어지지 않을 때는 독기를 모두 빨아낼 때까지 기다리면 저절로 떨어지게 된다. 이때 빨리 이 흡독석을 가져다가 유즙(乳汁) 속에 담가 약간 푸른빛으로 변하도록 내버려 둔 후에 이 돌을 꺼내서 맑은 물로 깨끗이 닦아서 잘 말려 보관해 두면 나중에 쓸 수 있다. 그 돌을 담갔던 유즙에는 이미 독기가 그 안에 있으므로 반드시 땅을 파고 묻어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을 피해야 한다. 만일 물린 곳의 독기나 부스럼 독기가 혹 가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흡독석을 올려두고 독기를 빨아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전과 같다. 만일 흡독석이 떨어져서 잘 붙지 않으면 이는 그 독기가 이미 다 가신 것이니, 병이 서서히 나을 것이다. 유즙은 반드시 반 종지쯤 필요에 따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사람의 젖이나 소의 젖 모두 좋다. 혹시 이때에 담글만한 유즙이 없거나 혹 담그는 것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이 돌은 손상되어 후에 사용할 수 없다.

-한문본 연행록->한글 번역의 과정은 단일한 텍스트 내의 비교/분석만으로는 한계 봉착

-‘여성 독자를 위해 ‘한글’로 번역했다라는 필사기(筆寫記)의 행간을 ‘인접자료’로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

- ‘어떠한 어머니 였는가?(신분, 삶, 지식욕구)’, ‘번역자(아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교육의 상호작용)’ 등을 입체적으로 고찰하는 시도가 필요

감사합니다.

